대학 10곳 중 7곳 등록금 올렸다
연평균 27만7000원, 4.1% 인상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3곳 중 136곳 인상, 57곳 동결
학생 1인당 연평균 711만원 집계

올해 전국 일반대 및 교육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학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4% 넘게 인상되면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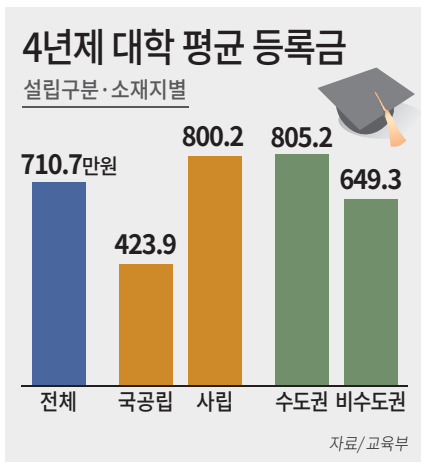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를 제외한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다.

2025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70.5%에 해당하는 136개교가 인상했고, 29.5%인 57개교는 동결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65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등록금 682만9500원과 비교하면 27만7000원(4.1%) 오른 수치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최근 3개년의 물가상승률이 3.66%으로 높아지면서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은 5.49%를 기록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지만, 올해는 등록금을 법정상한에 맞춰 올리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 유형별 등록금은 사립은 800만2400원, 국·공립은 423만8900원이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805만1700원, 비수도권은 649만2500원으로 집계돼 수도권 대학의 학생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평균 등록금은 ▲의학(1억16만9700원) ▲예체능(814만4000원) ▲공학(754만4000원) ▲자연과학(713만8600원) ▲인문사회(627만26000원) 순이다.

전문대학도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국 전문대학 129개교 중 94개교(72.9%)가 인상했고, 34개교(27.1%)는 동결, 1개교(0.8%)는 인하했다.

전문대학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45만500원으로 전년(619만1900원) 대비 25만8600원(4.2%)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지속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지속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수도권 지하철요금 1400원→1550원 인상

서울교통공사, 6월 28일 예상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6월 말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운임 조정안을 확정했다.

운임 조정안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50원 인상돼 1400원에서 1550원이 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도권 지하철 1회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현재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1500원이지만, 조정안에 따라 16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탑승할 경우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조조할인은 ▲일반 요금 1240원(현행 1120원) ▲청소년 720원(640원) ▲어린이 440원(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6월 말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인상 시기는 6월 28일이 유력하다. 다만, 시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2년 전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대내외 사정 상 미뤄졌던 것으로, 아직 인상 일자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스템 개선 등 실무적 준비를 마치고 6월 28일 내외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인상안은 기존 거론됐던 대로 진행되겠지만,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내달 3일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어린이날 맞이 3일간 진행

파주출판도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축제를 준비했다. '제23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가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린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무대에서는 책을 소재로 한 인형극과 낭독극 등 어린이 맞춤 공연이 펼쳐진다. 출판사들이 준비한 작가와의 만남, 공동연수 같은 강연 프로그램도 열려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직접 작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그림책 공개 토론회와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체험 부스도 풍성하다. 그림책 작가와 함께 간단한 놀이를 즐기는 '그림책 작가 테이블', 41개 출판사와 서점이 운영하는 '북마켓'에서는 다양한 어린이책을 직접 살펴보고 출판 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다. 이밖에 출판사, 도서관, 동네 서점 등이 운영하는 '오픈하우스'에서는 체험·전시·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파주청소년재단, 교하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 파주시동보호전문기관, 파주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들도 협력해 다양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페인존'을 운영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성북 장위 등 11곳 신통재개발 후보 선정

서울시, 환경개선 시급 등 종합 고려
상반기 용역준비, 본격적 착수 예정

서울시는 28일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08곳이 됐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이번 후보지로 선정했다.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장위13-1)와 장위동 224-12일대(장위13-2) 2곳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었지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였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주택지로 꼽히고, 관악구 신림동 119-1일대도 일명 고시촌 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곳이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신정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 비율이 상당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 몇차례 걸쳐 후보지 미선정됐으나,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실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신풍역)는 신풍역 및 보라매역 인근의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는 응암2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새절역과 백련산 중간에 위치하고 가좌로에 접해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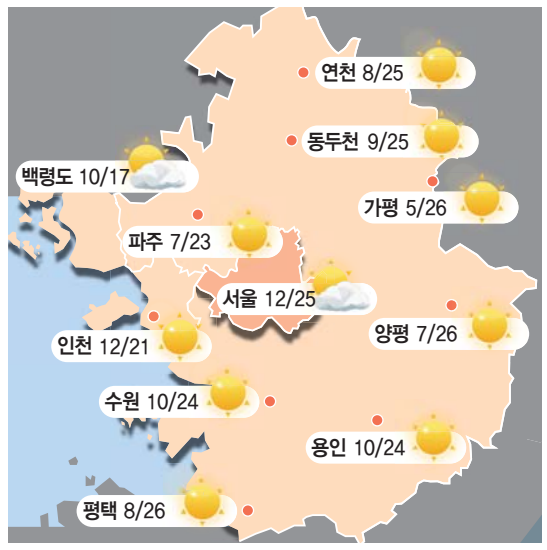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4월
30일(水)
음력 : 4월 3일

해뜸 / 05:38 | 해짐 / 19:21

수도권 날씨
12 ~ 25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마진 양보해라" 아마존, 공급업체에 가격 인하 압박
▲ 獨차기 총리 메르츠, 첫 내각 인선 발표…보수·안보·경제 역점 /사진 뉴시스
▲ "中 화웨이 칩 개발, 엔비디아 사업에 영향 없을 듯"
▲ 中왕이 "타협은 괴롭힘만 늘려"…美 맞서 단결 촉구
▲ EU, 트럼프 '공해 광물개발' 행정명령에 "국제협약 우회…심히 유감"
▲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에 5년 휴전' 하마스 제안 거절